

## 충북지역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대학 취업담당자와 대학생들 간의 인식의 차이

김동환<sup>1\*</sup>, 오상영<sup>2</sup>  
<sup>1</sup>청주대학교, <sup>2</sup>영동대학교

###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Differences Between Staffs and Students on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ing Activities in Choong-buk Province, Korea

Dong-Hwan Kim<sup>1\*</sup> and Sang-young Oh<sup>2</sup>  
<sup>1</sup>Cheongju University, <sup>2</sup>Youngdong University

**요 약** 경제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산업으로 인해 대학생의 실업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률 문제가 대학의 평가로 이어질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학생 취업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용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활동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지원활동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지원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수정 제안과 함께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corporation's growth without more jobs, college graduates unemployment issue has bee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employment rate of each college became an important factor of college evaluation by the government, each college is trying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students. Therefore universities are supporting student employment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However there have been perception differences in intention of employment supporting activities, final results, preparedness, student satisfaction level and overall effectiveness level of program between students and university career center staff members. The perception differences may lead not only to the waste of budget but also ineffectiveness of various programs to promote student employment.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new revised efficient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desirable attitude of stud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tudent employ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level on the several issues such as degree of usefulness of program and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Key Words** : Employment supporting activities, College graduates unemployment rate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절대 평가 기준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등 4대 지표를 통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

학으로 선정한다.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에 따라 대학의 취업률이 심하게 변화되었지만 경제 환경과 관계없이 대학은 취업률을 높여야만 한다. 이처럼 교과부의 대학평가 기준들은 학교 당국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취업률은 신입생 모집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교신저자 : 김동환(dhkim@cju.ac.kr)

접수일 11년 06월 19일

수정일 11년 08월 10일

게재확정일 11년 08월 11일

때문에 대학들은 학생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도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황여정 외(2008)는 대학의 취업 지원 노력과 4년제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5]. 최동선 외(2008)는 대학은 직업세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 진로경로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인적성에 맞는 직업의 접근방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에 대한 학습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4]. 또한 박미숙(2001)은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진로 성숙도 전체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그 하위 영역인 결정도, 관여도, 선택의 태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6]. 이경숙(2003)은 자기 주도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성숙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도영역 모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능력영역에서는 직업세계의 이해와 직업선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의사 결정에서는 유의미하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8]. 김민수(2004)는 대학생의 취업 인식실태를 통한 취업 전략과 같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대학의 취업 정책의 연구와 함께 대학생의 수요와 대학 정책의 지원 수준의 분석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2].

이와 같이 대학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생의 취업지원에 방안에 관해 보다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취업담당자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에 관한 인식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 2.1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취업서비스는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취업률은 곧 대학 경쟁력이므로 대학들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각 대학에는 취업지원센터 혹은 취업지원팀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달리하는 곳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수행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16]. 이러한 정책의 종류에는 산학협동교육, 맞춤형 취업대비 교육, 인턴제도 운영, 취업관련 강좌 개설, 교원에 의한 취업 지원, 취업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취업전문기관 연계한 직접 취업지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운용되는 대학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하여 충북 테크노파크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학의 취업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학생이 선호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특강 개설, 취업 준비 교과목 개설, 기업 취업 캠프, 임용 취업 지원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 졸업생 간담회 개최, 취업상담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한 취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취업 실습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임용시험 관련 지원 프로그램, 기업 취업 캠프, 취업 준비 교과목 개설, 취업 상담 활성화, 토의 스파르타 교육, 취업센터 활성화, 학부, 과별 순회 특강 및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17].

### 2.2 대학생의 취업 행동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크게 심리적 특성과 개인적인 환경 특성 중심으로 연구될 수 있다[11].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구직행동(job hunting, job seeking)',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지만 취업을 위한 학생이나 구인 기업에게도 모두 중요한 과정이다[20]. 또한 직업탐색(job search)은 잠재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이는 포괄적 탐색과 집중적 탐색으로 나눌 수가 있다[22].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취업정보시장(job information market)'에 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업정보시장(hidden information market)'으로부터 정보를 찾아내는 것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는 비공식 정보이다[19].

대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Soelberg(1967)는 구직자와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서 직업탐색과 선택에 중점을 둔 모델을 개발하고 특정의 직업탐색과 선택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과 그 과정을 연구하였다[21].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병훈(2002)의 연구에서는 직업탐색 및 구직행동 관련 연구[9]를 주로 경제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김재원(200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구직행동 관련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3].

### 2.3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와 취업지원 조직의 문제점

대학의 취업지도 서비스를 경험한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한 최동선(2006)의 연구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의 만족도 점수가 대부분 3.7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13].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취업전산망 이용의 만족도(3.47점)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진로 및 취업준비 교과목 수강이었다.

또한 대학 취업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과 김학섭(2004)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의 취업전담 부서는 설치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5]. 강무섭 외(2006)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 기업차원의 대책에 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과 인턴사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체 채용관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따라서 인턴사원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엽(2003), 채창균(2003)은 대학 재학 중 일자리 체험이 취업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재학 중 일자리 체험이 장기적으로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4,12]. 그러므로 대학은 학생의 장기적 발전까지 고려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병희(2002),황여정·백병부(2008)의 연구에서는 재학 중의 일자리 체험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15].

## 3.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 3.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측정 변수와 연구자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변수를 첨가하여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대학의 일반 현황, 취업프로그램 운영현황(취업 가이드북 제작 지원 여부, 취업준비 특강, 취업박람회 실시, 잡 카페 운영, 취업을 위한 기업인 초청 강연, 인턴십, 현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해외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 프로그램의 학생 및 기업의 선호도, 예산 규모, 취업 프로그램 노력도, 정부 지원 요구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설문 문항은 대학생의 일반 현황,

취업 준비 사항, 취업 시 중요도 예상,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필요성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4년제 및 2년제 대학교로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극동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중원대학교, 강동대학, 대원대학, 주성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등 15개 대학으로 취업담당자가 응답하였다. 대학생 표본은 충청 지역의 15개 대학에 각 100~110명 수준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수집은 우편, 팩스, 그리고 e-mail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은 대학 기관의 협조로 모두 유효하여 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대학 기관은 14개 기관, 대학생 유효 설문 1,600부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량(도수, 기초통계량, 교차분석 등), 집단 간 평균분석(t-test),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결과

###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 구성의 신뢰성 검증에 Cronbach  $\alpha$  계수를 측정하였다. 평균 값 비교를 위한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 구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 값을 측정한 결과 0.881로 나타났으며, 대학이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설문 구성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0.77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설문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설문의 신뢰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4.2 기초 통계량 분석

#### 4.2.1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운용 현황 분석

표본 대학은 4년제 66.7%, 2년제 33.3%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지참할 수 있는 취업가이드북 제작 지원은 응답 대학의 46.7%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학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취업 특강을 86.7%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박람회를 실시하는 대

학은 26.7%이며, 그렇지 않은 대학은 73.3%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과/지도교수의 취업지원 활동으로 상담 71.4%, 인턴십, 현장체험 기회 소개 21.4%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3억원 미만(15.4%), 4억원 미만(23.1%), 5억원 미만(15.4%), 5억원 이상(46.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취업 희망 기업규모는 대기업이 30.9%, 중소기업 35.4%, 공공기관/공기업 31.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연봉은 약 3,000만원 이상이 60.9%로 나타나 희망연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정보 수집 시 가장 도움이 되는 곳으로 해당 기업 홈페이지 43.6%, 민간전문취업기관 24.9%, 학교취업기관 홈페이지 10.9%로 나타났다. 대학의 취업지원 담당부서 필요성에 대하여 85.1%의 학생이 인정하였으며 응답자의 77.1%가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2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분석

취업담당자들은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78.5%가 현실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충청북도 주관 취업박람회 효용성에 대해서는 66.6%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과(교수)의 취업지원정책 참여도는 보통 수준이 57.1%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용 시기는 2년제 대학은 2학년 1학기, 4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대학의 취업정책의 노력 수준 분석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항목별 노력정도 평가에 대한 14가지 항목에 대해 다음 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준비 지원, 취업상담 확대가 높았으며, 기업체 인턴십 확대, 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항목별 노력 정도  
[Table 1] degree of student's efforts on the each item of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교과과정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4.07	1.207	3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3.29	1.267	13
3)취업상담 확대	4.29	0.914	2
4)취업정보 제공 강화	3.86	0.770	7
5)기업체 인턴십 확대	3.21	1.188	14
6)(학과)교수의 취업지도 강화	4.07	0.829	3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3.57	1.016	11

8)학생 요구 반영된 프로그램	3.79	0.893	9
9)취업준비지원	4.64	0.633	1
10)취업정보지원	3.93	0.917	5
11)기업정보지원	3.43	1.284	12
12)프로그램 체계성	3.93	1.072	5
13)프로그램 통합성	3.86	0.864	7
14)프로그램 다양성	3.64	1.216	10

\*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노력 상위 3위 항목의 음영 처리

#### 4.4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성 분석

인력양성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평가에 대해 아래 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항목의 평균값이 비슷하지만 진로지도 체계화, 재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산업체 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리콜제도, 교과목 개설시 산업체 인사 참여 필수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인력양성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Table 2] degree of necessity for the human development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 개발/운영	4.33	0.900	3
2)실무능력 자격/능력인증제 도입	4.07	0.799	7
3)리콜제도	3.93	0.704	10
4)학습방법개선	4.20	0.676	4
5)진로지도 체계화	4.67	0.488	1
6)산학협력 내실화	4.20	0.775	4
7)직업교육 정보네트워크 구축	4.13	0.834	6
8)교수/강사와 현장인력 간 상호교류	4.07	0.704	7
9)교과목 개설시 산업체 참여 필수화	4.00	0.845	9
10)재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4.40	0.507	2

\*대학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 상위 3개 항목 음영처리

#### 4.5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필요성)과 대학 취업담당자(대학의 준비성)의 인식차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1)교과과정에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3)취업상담 확대(학과, 학교 취업지원센터), 6)(학과)교수에 의한 취업지도 강화,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8)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항목은 학생의 필요성에 비해 대학의 준비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4)취업정보 제공 강화(학교), 5)기업체 인턴십 확대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대학의 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필요성)과 대학 취업담당자(대학의 준비성)의 인식 차이

**[Table 3]** perception differences on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between students and career center staff members

항목	대학생		대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교과과정에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3.81	0.821	4.07	1.207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3.94	0.816	3.29	1.267
3)취업상담확대(학교취업지원센터)	4.06	0.790	4.29	0.914
4)취업정보 제공 강화(학교)	4.12	0.770	3.86	0.770
5)기업체 인턴십 확대	4.15	0.822	3.21	1.188
6)(학과)교수의 취업지도 강화	3.89	0.820	4.07	0.829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3.57	0.953	3.57	1.016
8)학생 요구 반영 프로그램	3.97	0.845	3.79	0.893

\* 대학생 도수 1,162명, 대학 도수 14개

#### 4.6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만족도)과 대학 정책(준비성)의 비교 분석

취업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에서 대학의 준비성에 비해 대학생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만족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1)취업준비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항목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프로그램의 대학생(만족도)과 대학정책(준비성)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and university preparedness

항목	대학생		대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취업준비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3.47	0.881	4.64	0.633
2)취업정보 지원 (채용시기, 시험응시정보 등)	3.34	0.840	3.93	0.917
3)기업정보 지원 (보수, 근무부서, 발전성 등)	3.26	0.886	3.43	1.284
4)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년/업종에 따라 맞춤형 지원)	3.32	0.945	3.93	1.072
5)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수, 학과, 학교의 연계성)	3.39	0.954	3.86	0.864
6)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박람회, 잡가페 운영 등)	3.44	0.943	3.64	1.216

\* 대학생 도수 1,162명, 대학 도수 14개

#### 4.7 대학과 대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대학생이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성 분석에서 대학생은 평균 3.33(sd=0.892)으로 분석되었고 대학 스스로 평가에서는 3.79(sd=0.699)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평균 차이가 유의성을 내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이 느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대학 취업 프로그램 현실성 수준 T-test 분석

**[Table 5]** T-test analysis on the reality of university employment program

항목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평균 차이	신뢰구간 (95%)	
					하한	상한
대학	20.255	13	0.000	3.79	3.38	4.19
대학생	65.828	310	0.000	3.33	3.23	3.43

#### 4.7 대학 취업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

대학은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가 평균 4.0(sd=1.617)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학생의 만족도는 평균 3.46(sd=0.880)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평균 차이가 유의성을 내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이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이 느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표 6]** 대학 취업 프로그램 만족도 T-test 분석

**[Table 6]** T-test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university employment program

항목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대학	9.25	13	0.000	4.00	3.07	4.93
대학생	69.70	312	0.000	3.47	3.37	3.57

### 5. 결론

본 논문의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활동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주요 이슈에 관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5.1 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기사작: 조사결과에 의하면 2년제 대학은 졸업년도인 2학년 1학기부터 그리고 4년제 대학교는 3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학교 시절에 직업의식 교육이나 경력계획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후의 자신의 진로에 관해 스스로 신입생 때부터 일찍 직업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여 4년 동안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학생과 취업담당자들의 만족도 차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학교 당국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이유가 발생했는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나 기대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학 전체차원의 커리큘럼 개정과 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체 요구가 반영되는 교과과정의 개발/운영 그리고 취업 준비 관련 교과목 설치 등은 그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거나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이나 준비는 미진 한 것으로 보인다.

## 5.2 학생

대기업 취업 선호와 높은 수준의 보수 기대감에 대해 대학생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62.9%이며 중소기업은 35.4%의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희망연봉은 3,000만원 이상이 60.9%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기업이나 높은 수준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높은 기대와 요구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거나 가능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는 학생들의 안목과 판단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직활동은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학의 취업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준비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측이 제공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의 질이 낮기 때문 일 수도 있으나 취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학생들의 구직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직목표나 활동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5.3 기업

대학생들은 취업지원 활동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기업체 인턴십 확대를 들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가장 준비가 되지 않은 활동으로 역시 기업체 인턴십 활동을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산학협동을 통한 인재확보와 인력양성 차원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생 인턴십 활성화 방안을 좀 더 협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5.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전문대학 취업박람회의 실시와 실속 있는 행사의 개최가 필요하다.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던 대학은 26.7% 이며 나머지 대학 즉 73.3%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박람회 개최를 주로 규모가 있는 4년제 대학에서만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주관한 취업박람회의 효용성에 관하여 대학의 취업담당자들 66.6%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국가기관의 요구에 마지못해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채용박람회가 학생들과 학교당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5.5 연구의 한계

본 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15개 대학교중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있는 4년제 대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 References

- [1] Kang, Museob, Jun, Dokeun,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program to solve the problem of college graduates unemployment," KERIVET, 2006
- [2] Kim, Minsoo, "Employment strategy through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employment," 2004
- [3] Kim, Jeawon, "Research on the college student's employment preparedness and work behavior, 6(1), pp.211-242, 2003
- [4] Kim, Jooyoub,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s while in college on the labour market outcomes," The 4th Korean labor panel scientific conference paper, KLI,

2003

[5] Kim, Hakseub, "Research on the career development activation programs focused on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Konkuk Univ.,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2006

[6] Park, Misook, "The effects of group counselling program of career search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Kookmin Univ.,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 master's thesis, 2001

[7] An, Kwansoo, "Strengthening university employment competitiveness and career guidance program," Wonkwang Univ., A master's thesis, 2006

[8] Lee, Kyungsook, "The effects of self-directed group career search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sense of self respect," Daejun Univ.,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 master's thesis, 2003

[9] Lee, Byunghoo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factor of job search activity," Labor Economic journal, Vol 3, pp.1-21, 2002

[10] Lee, Byunhee,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s while in college on the labour market outcomes," A youth panel Symposium of KEIS, KEIS, 2002

[11] Lee, Jekyu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background factor," Seoul national Univ. NU. A doctoral thesis, 2004

[12] Che, Changkyun, "Work experienc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during college life," KERIVET Job Education Research, Vol.22, pp.169-184, 2003

[13] Che, Dongsun, "Innovation of college student career guidance system," KERIVET, 2006

[14] Che, Donsun, Kim, Nari, "Future job market-survey on master and doctoral students of graduate school," KERIVET, 2008

[15] Hwang, Yeoujeong, Baek, Byungboo, "Labour market outcomes determination factor of college graduates," Job Capability Development Research, 1(2), pp.1-23, 2008

[16] MES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 manpower development center, 2004

[17] CBTP, Information on college employment policy survey, 2011

[18] KERIVET, Career guidance and labour market transition, 2002

[19] Allen, R. E., & Keaveny T. J.,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s job sour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pp.18-32, 1980

[20] Smith C. L., & Gerhar B.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 ability on multiple measures of labor marker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Miami, FL., 1991

[21] Soelberg, P., "A study of decision making: Job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rnegie-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1967

[22] Steffy B. D., Shaw K. L., & Noe A. W.,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35, pp.254-269., 1989

**김 동 환(Dong-Hwan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83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선발과 채용, 국제인적자원관리, 기업문화, 기업윤리

**오 상 영(Sang-Young Oh)**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2010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KMS, 혁신이론, e-Biz, BSC, 지혜경영